**학개** 3/28/22

**배경**: 학개서의 저자인 선지자 학개는 ‘축제’ 혹은 ‘절기’라는 뜻의 이름이다. 주전 538년 페르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을 중심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16년 간 중단된다.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주전 520년)에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저자와 기록연대:**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로서 2장 3절에 따라 그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목격한 것이라면 지금 그는 최소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사역은 다리오 왕의 제2년인 주전 520년(1:1)에 약 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학개서는 그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 성전 건축의 우선성.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는 삶이 주는 축복(하나님의 영광/임재, 평강)과 불순종의 결과 (불만족, 부정함).

**개요**

1. 첫번째 말씀: 성전을 재건하라 (1:1-11)
2. 스룹바벨과 백성의 반응 (1:12-15)
3. 두번째 말씀: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리라 (2:1-9)
4. 세번째 말씀: 부정한 백성이 정결해지리라 (2:10-19)
5. 네번째 말씀: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 (2:20-23)